

만개의 래시피



이미경, 56세

가족 나혼자 산다

직업 프리랜서

좋아는 음식 튀김, 전 종류를 좋아한다.

어머의 음식이 먹고 싶다~~! 내가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 ...

Charecter

어쩌다 보니 결혼은 안하고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동생은 결혼해서 살고 나는 혼자 산다. 나는 늦은 나이까지 헌신적이였던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다. 젊은 시절 요리를 안하다 보니 나이를 먹어도 못한다. 이제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엄마가 맛있게 해 주시던 그맛을 나도 내고 싶다!!!

니즈 및 불만족

요리하는 동영상을 찾아 볼때가 많은데 도입 부분에서 사용할 재료와 양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밑에 걸어 놓았다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다. 요 리 과정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요리 고수들은 당연 히 아는 것을 나는 모른다.

육 요리 어린이를 벗어나고 싶다 고수님들 꿀팁 좀 알려주세요~~~



나미란, 43세

가족 남편과 단둘

직업 회계

좋아는 음식 다 좋아하지만 특히 고기

Charecter

직장일로 남편도 바쁘고 나도 바쁘다ㅜㅜ 그래도 일도 열심히! 퇴근 후에 운동도 열심히! 비가 오지 않으면 탄천을 달린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음식이 다 감사하다~~

니즈 및 불만족

요리하고 남은 재료 활용법도 같이 소개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요리에 미나리가 들어가서 한단을 사고 나면 실상 거의 대부분이 남는다 결국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린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 주면 좋겠다. 사용하는 저울이나 그램을 실생활에 있는 것으로 대체해 주면 좋겠다. 중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할때도 있다.

<u>출처</u> PERSONA 02

맛있게 먹고 나도 좋고 맛있게 먹고 나도 좋고 세상 모든 사람도 행복하면 더 좋겠지!!!



정우성 54세

가족 아내

직업 NGO단체 임원

좋아는 음식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다 좋다.

진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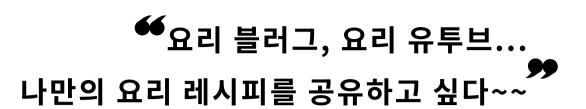
Charecter

어쩌다 보니 자녀들도 독립하고 아내와 단둘이 산다 자녀들이 있을 땐 자녀 위주로 식탁이 차려졌지만 이제는 나 위주로 차려진다. 좋다!

니즈 및 불만족

많은 만들게 되어 남는 음식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 득이 되면 좋겠다. 중고판매 어플인 '당근'처럼 남는 음식이 있을 때 이웃에게 무료나눔이 되어 버리는 음식이 없게하고 나눔을 받은 사람은 100원이나 200원정도 작은 금액으로 기부를 하여 아프리카같이 한끼 식사가 어려운 곳에 도움이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는 한끼 식사 가격이 100원 정도이다)

출처 PERSONA 03





고소영, 53세

가족 남편

직업 주부

좋아는 음식 남이 해주는 음식

Charecter

아들 둘 키우며 시아버지 병간호 해가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환자에게 좋은 음식, 잔치음식, 베이킹 등 다양한 음식을 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장말 요리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이제는 나만의 레시피를 공유해 볼까~~~

니즈 및 불만족

다양한 요리를 한다보면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김장이라든가 대게를 찐다든가 할 때 장비가 필요하다.

일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것으로 큰 장비를 사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럴때 장비를 랜탈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싶다 ㅎ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서 먹고싶다



전수오, 32세

가족 앵무새 두마리와 함께 산다

직업 선거 사무소 팀장

좋아는 음식 엄마가 해주는 밥

Charecter

엄마가 손도 크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셔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여주셨다. 그런 엄마 덕분에 나도 요리를 좀 한다.

그러나 바쁜 일정으로 거의 모든 끼니를 사먹고 있다. ㅜㅜ 사먹는 건 뭔가 좀 부족하다.

니즈 및 불만족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식재료 선물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많은 양의 대게. 많은 양의 석화, 쇠고기...

이럴때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기에는 피곤하고 도구도 없고 ...

먹고 싶은 식재료를 가져가면 요리 해주는 곳 필요!



만개의 레시피 Persona

만개의 래시피



이름 : 천송이

결혼한지 얼마안된 새댁이다.

남편에게 아침과 저녁을 잘 차려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 음식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요리 어린이지만 시간을 내서 요리 학원도 다니고 싶고 유튜브도 열심히 봐서 요리 실력을 늘리고 싶다. 모르는 요리 꿀팁도 많이 전수 받고 싶다.

집들이도 해야하는데 ...

이름, 이미지

행동유형

인구통계자료

니즈와 불만족

분당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새댁 결혼전에는 직장에 다녔지만 이제는 쉬면서 남편 에게 요리해 주고 싶다. 미래의 요리 블로거

- 요리 하는 것 뿐만아니라 식자재를 다듬는 방법도 꼼꼼히 세세히 알려주어야한다. 다 알거라 생각하고 안 알려주시는데 파 다듬는 법도 잘 몰라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다가 흙이 나오기도 한다.
- 좋은 재료 고르법과 시기를 설명을 안해주었다. 열무김치가 먹고 싶어서 재료를 사서만들었는데 제철이 아니여서 질겨서 못먹었다ㅜㅜ
- 글로 설명해 주는 레시피에 같이 유투브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된 걸 거의 보지 못했다.
- 길비가 먹고 싶어서 갈비를 만들었으나 실패했을 때 갈 수 있는 근처 갈비 맛집을 소개해 주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 동영상을 볼때 말을 좀 빨리하고 개인 사설은 안했으면 좋겠다. 요리를 알고 싶은건데 말이 길다.